

2 내일로 향하는 힘 HRD로부터

2019 February Vol.35

기획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RD Interview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장신철

정책동향

'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19년 추진계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 혜택 제공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사업 개편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19~'23) 발표

현장동향

고용노동부장관, 혁신인재 양성의 현장에 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 능력이 중요한가?

HRD통계

조선업 위기로 실패본 울산의 최근 노동시장 동향

연구동향

우수숙련기술인 지원 및 역할강화 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방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타고난 지능지수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경제적 지위,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 정규교육 보다는
평생에 걸쳐 배우는 자세에 있다.

존 코터(John P. Kotter, 하버드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운명’ 에서



cover story

평생학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힘입니다.

내일로 향하는 힘, HRD로부터.

통권 제35호

발행일 2019년 2월 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전화번호 052-714-8323

구독신청 및 문의 keh4785@hrdkorea.or.kr

디자인·인쇄 승일미디어그룹(070-7416-4124)



CONTENTS

기획

- 4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6 HRD 인터뷰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장신철

정책동향

- 8 '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19년 추진계획
- 9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 혜택 제공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사업 개편
- 10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19~'23) 발표
- 11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예산
- 13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현장동향

- 14 고용노동부장관, 혁신인재 양성의 현장에 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받아
- 1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내년부터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기준 마련키로
- 1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 특화대학 선포식 개최
2019년도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개최
- 17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 능력이 중요한가?

HRD통계

- 18 조선업 위기로 살피본 울산의 최근 노동시장 동향

연구동향

- 20 우수숙련기술인 지원 및 역할강화 방안 연구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 21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방안

기관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일로 향하는 힘, **HRD 동향** 더 나은 을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월간 **HRD 동향**은 2016년 4월호(창간호)를 시작으로 2019년 1월호까지 통권 34호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더 유용한 콘텐츠, 더 알찬 정보로 구성하기 위하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디자인 ▲테마, 특집에 관한 내용 ▲HRD칼럼 ▲정책/현장/연구동향 콘텐츠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만족도 ▲기타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주실 곳

• email : keh4785@hrdkorea.or.kr
• 전화 : 052-714-8323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12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다.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 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별로도 구분하였다.

다음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만 18~34세 청년 중 ①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② (소득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 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무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제외)

참고사이트 : 온라인청년센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93, 7443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19년부터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등 다양한 모델의 연구·선도학교 운영
- ① 연구학교(34교)운영 : 2018~2021-23교/2019~2022-14교
- ② 선도학교(66교)운영 : 2019~2022-66교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739, 6384

2019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3% → 10%, 중견기업 1~2% → 5%로 확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후 1,600만 원, 3년후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한은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2년형

청년	2년간 매월 12만5천 원씩 총 300만 원 적립
정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2년간 총 900만 원 지원
기업	정부에게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 원을 지원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2년간 400만 원 지원

3년형

청년	3년간 매월 16만5천 원씩 총 600만 원 적립
정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2년간 총 1,800만 원 지원
기업	정부에게 채용유지지원금 3년간 750만 원을 지원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3년간 600만 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2번 → 5번/044-202-7495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재직여성에게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새일센터)을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 확대 운영합니다.

취업여성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

기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3



Profile

- 34회 행정고시
- 고용부,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 駐OECD 대표부(파리) 근무
-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지방노동청장
- 前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
美 일리노이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정책학 박사

정부지원 훈련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의존, 원격훈련의
과도한 팽창과 훈련예산
부족, NCS 훈련단가의 개편,
훈련기관과 과정 심사에 대한
부담 완화와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으로 이어지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완성해 나갈 것

양질의 직업 훈련 제도 제공으로 기술변화·실업의 파도 극복할 것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장신철 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부임한지 2달여가 되었다. 부임 소감은?

이번에 직업능력정책 분야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일해 보고 싶은 분야였다. 오기 전에 서울노동청장과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생활을 2년 정도 하였다. 훈련분야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지원 훈련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의존, 원격훈련의 과도한 팽창과 훈련예산 부족, NCS 훈련단가의 개편, 훈련기관과 과정 심사에 대한 부담 완화와 효율화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인구구조 변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노동시장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 직업훈련은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제 국민들의 신기술 적응력 제고와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분야의 신기술 훈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재학-구직-재직-재취업'으로 이어지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훈련을 원하는 국민이 있다면 누구나, 어디서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1~2년 내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 훈련이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주요 사업별로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하면 사정이 어떠한가?

금년 예산은 '18년 본예산 약 2조 3천억 원에 비해 1,100억 원이 감소했다.

실업자 지원 훈련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약 9백억 원 이상 늘었으나, 작년에 추정·기금변경 등으로 1,800억 원 정도 추가예산이 투입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 지원 훈련액은 약 204억, 컨소시엄 훈련은 944억 원, 일학습병행 훈련도 471억 원 가량 감소했다. 따라서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년에 실업자 훈련과 사업주 훈련은 훈련실시인원이 크게 늘어 예산 부족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에 어떻게 제도 개편이 이루어 지는가?

훈련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인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실업자 훈련의 경우 작년 8월부터 계좌발급 사전배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계좌제 훈련에 대한 자부담률을 인상하였다. 사업주 지원 훈련의 경우에는 성희롱·산업안전 등 원격공통법정훈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고 직무법정훈련 지원율은 50% 인하하였다. 최근 원격훈련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이 2016년 781억 원에서 2018년 1,736억 원으로 급증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훈련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인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쓰일 수
있어야 할 것

금년에는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근로자들이 새로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현행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 (2018년, 약 50만 명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금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에게도 1월 15일부터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 내역 등만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150만 원이다. 예산은 2019년에 186억 원이 반영되었고 약 1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약 1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와 고용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훈련 기관들은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술변화와 실업의 파도를 극복해 나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19년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능력개발에 역점

2019년 1월 3일,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의 2018년도 추진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신규채용인원이 2017년보다 32.2%(6.8명 → 9.0명) 증가하였고, 순채용인원도 70,287명 증가 *'17년에는 전년대비 신규채용 증가율이 0.8%였던 반면, '18년도는 32.2%에 달함 현장에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이 채용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5개월 가량 일찍 취업 (취업소요기간 : 청년공제 5.9개월, 전체 평균 11.2개월)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4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는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았던 핵심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 청년센터 등 정책 전달체계 개선, 구직활동지원,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능력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기존 지원인원에 추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총 18만 8천명(예산 6,745억 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총 25만 5천명(예산 9,97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

②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 '19년부터는 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도 안내하고, 오프라인 청년센터 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예약시스템도 지원할 예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추진 중

③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위 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
-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
- *예: (고용부)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지자체) 졸업 후 2년 경과 청년

④ 신기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확대

- 한국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응용소프트웨어, 의료바이오, ICT 응용제어 등 고학력 청년층 대상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18년 545명→'19년 775명)하고, 폴리텍 제2융합기술 교육원, 로봇특성화 캠퍼스를 신설하여 신기술 훈련의 양과 질을 높임
- 대학 등 역량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확대('18년 700명 → '19년 1,300명)하고, 주요 양성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신기술분야 중심으로 지속 개편할 계획
- *'18년에 빅데이터 분석 등 12개 신기술 분야 직종 추가 (現 122개 직종)

신기술 적응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하이테크 과정

-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의 기업 맞춤형 훈련으로 신산업분야 전문가 양성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고급직업훈련과정 Test-Bed 구축(융합기술교육원, 생명의료시스템 등 3개과)
- 신산업분야 핵심기술 중심 학과로 지속 개편 예정

01

제2융합기술교육원·로봇특성화 캠퍼스

- 제2융합기술교육원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4(철산역 인근)
 - 운영학과 : 미래유망산업분야 5개 직종 (빅데이터분석, VR콘텐츠, 바이오의약품, 3D프린팅, 스마트에너지)
 - 훈련규모 : 양성훈련 100명(20명×5직종), 향상훈련 500명(변동가능)
 - 향후일정 : '19년 10월 개원 예정
- 영천 로봇특성화 캠퍼스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릉동 산 14-7번지 일원 (북영천IC 인근)
 - 운영학과 : 로봇분야 4개 직종(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IT, 로봇자동화)
 - 훈련규모 : 양성훈련 300명(75명×4직종), 향상훈련 1,500명(변동가능)
 - 향후일정 : '20년 3월 개교 예정

02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 대상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자 중 훈련기관에서 해당과정을 이수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취업 의지가 높은 이를 모집·선발
- 기간 : 3개월 이상 10개월 이하(350시간 이상)
- 향후 일정 : '19년(1차) 훈련기관 선정: 최종선정('19.1월말) → 훈련개시(3월~) '19년 2차 훈련기관 선정 공모는 '19.5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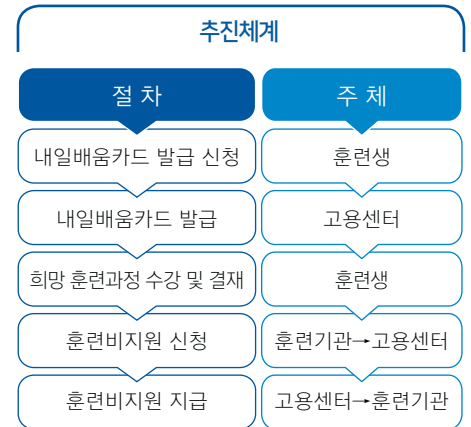
03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 혜택 제공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년 150만원까지 지원, 10만 명 혜택 기대

2019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19년 1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86억 원, 10만 명)
 - 지원대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수준: 1인당 년 150만 원 (5년간 225만 원 한도)
 -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직업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밝힘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사업 개편

규제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

2018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완료
- '19년 사업부터는 자치단체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책·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2019년 주요 개편 방향]

- 지방이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운영
-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추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전략적 지역고용목표 설정, 이행 유도

- 기존 사업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해온 지방비 편성 제한, 훈련 최소기준, 창업훈련 기준 대폭 완화

- 창업지원대상 연령층(청년한정) 폐지 →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가능
- 참여기관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편성 제한(지방비의 20%) 삭제
- 교육훈련사업 편성기준 완화 → 최소일수(20일) 기준 폐지
- 창업지원사업 편성기준 완화 → 최소 교육기준(경영분야10시간, 전문분야 30시간) 폐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 목적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
사업기간	'06~계속
사업규모	'18년 2.4만명, '19년 2.5만명
예산액	'18년 1,114억원, '19년 1,083억원
지원 내용	자치단체 규모 및 지역 고용 상황에 따라 교육·훈련, 창업·창직, 기업지원, 취업연계 등 지원 ①지역혁신프로젝트 ②일반 자.산.맞 : 기초 단위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③산업단지 합동공모 ④지역고용위기 대응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19~'23) 발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선도인재 1만명 양성

2018년 1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8년 12월 26일 혁신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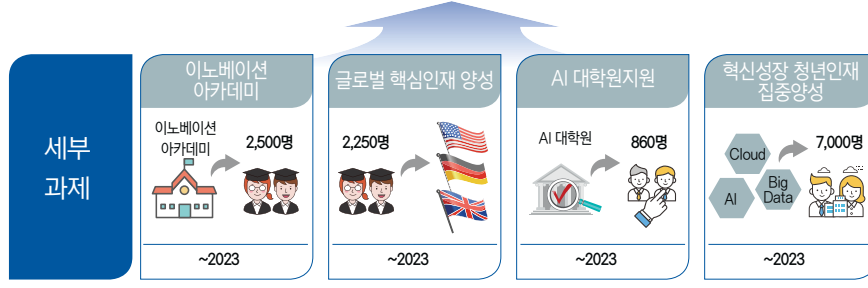
- 지난 8월 13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임

[선도인재 집중양성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비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강국
추진 목표	◇ 역동적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선도인재 1만명 양성('19~'23년)

추진전략

- 1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 2 시장수요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인재양성
- 3 민간 협력체계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



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운영

- 프랑스의 혁신 SW교육기관인 Ecole 42를 벤치마킹한 비학위 혁신 교육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을 설립하고 최고수준의 SW인재 2,500명 양성('19~'23년)
- 기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강조

②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2,250명, '19~'23년)

- 세계 유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19년 209억 원, '23년까지 2,090억 원 예정)

③ 인공지능(AI) 대학원 지원(860명, '19~'23년)

- 우수 교수진 확보, AI 특화 교육과정 개설 및 연구 몰입환경 조성 등('19년 30억 원, '23년까지 460억 원 예정)

④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8대 혁신성장 부문에서 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7,000명 양성)

-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기반 (50% 수준) 교육 훈련 실시('19년 280억 원, '23년까지 1,400억 원 예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교육 과정

2년 비학위 과정으로 추진하고, 향후 학생 구성,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 다양화 검토

운영 방식

관련경비(학교운영비, 학비)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되, 민간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운영 예산

'19년 350억원
('23년까지 1,806억원 예정)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겸 2019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개최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산업혁신 세부 추진계획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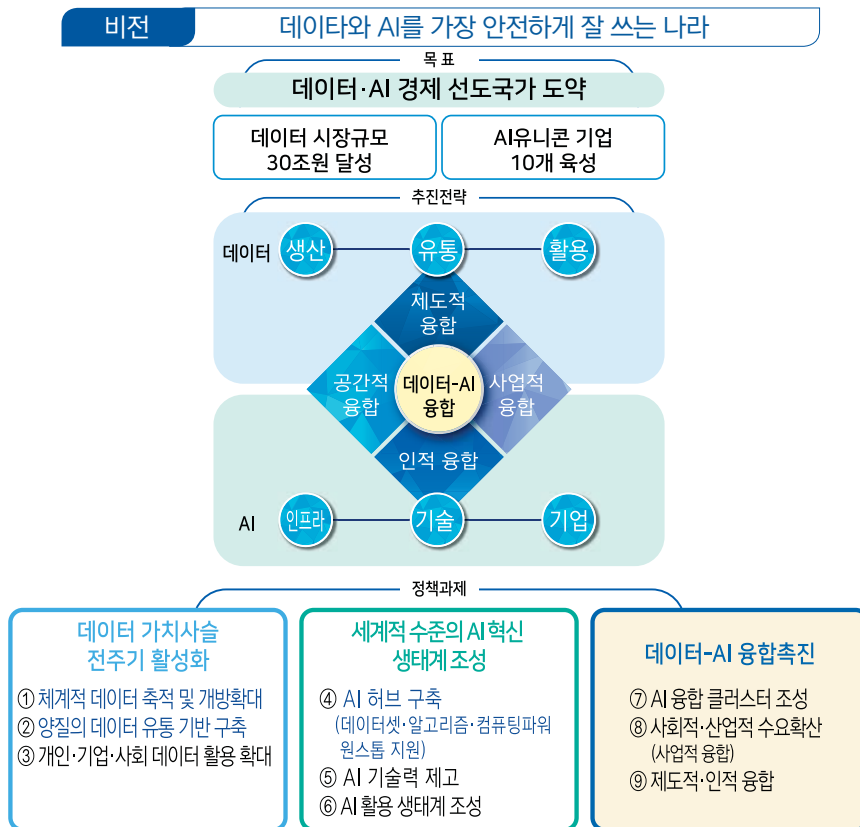
2019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6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겸 2019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이번 회의에서는 ①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②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③산업혁신 (Big Innovation)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

- 작년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까지 합하여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한 중기적 계획이 모두 마련되었으며, 플랫폼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19~'23년) 약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하에, 금년에도 예산 1.5조 원을 반영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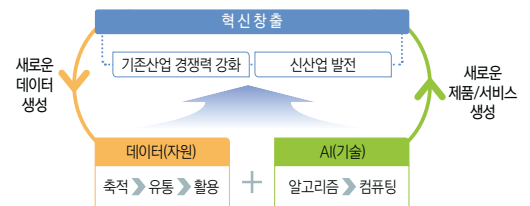
데이터·AI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① 데이터와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 요소로 부각

(예시) 글로벌 IT 대기업의 AI 혁신기술



② 미래의 경쟁은 대규모 데이터 확보와 AI 역량강화가 핵심



③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즉시 준비해야 할 필요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중 융합 가속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연간 약 2,000명)

- 데이터·AI 인력: 대학(원) 중심 전문교육, 실무중심 교육, 산업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 등 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

- 분야별 인력: 데이터·AI 적용이 가장 빠른 의료·금융·제조 분야 현장 종사 인력 대상으로 관련 기술이해·활용, 사례공유 등 교육 확산

- 혁신 인력: 비학위 과정으로 설립·운영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데이터·AI 분야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인재 양성

- 데이터·AI 분야 인력 간 교류의 장으로 (가칭)융합인재 컨퍼런스를 개최(연 1회)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예산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중점을 두어 예산지원 확대

2018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

- 19년 예산 : 7조 6,934억 원 (18년 6조 8,558억 원 대비 12.2% 대폭 확대)
- 산업부는 주요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18년과 비교하여 대폭 확대되거나 신설된 사업을 위주로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소개

■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 ('18년 801억 원 → '19년 921억 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설(70억 원)

- ▶ 혁신성장 분야 100명, 에너지신산업 분야 40명 지원
 -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선박, 로봇, 3D프린팅, 지능형반도체, 스마트공장, 엔지니어링 등
 -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프로슈머, 청정화력, 에너지 안전·보안
- ▶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년 이내 공동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인건비/체재비 48백만 원 이내, 연구활동비 48백만 원, 간접비 4백만 원 이내

⇒ (19.5월) 해외연수생 모집공고 (19.6월) 평가 및 선정 (19.7월) 해외연구·연수시작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주력, 미래신산업 핵심인력 양성 확대(851억 원)

- ▶ '19년은 5개 과정을 추가 신설한 30개 과정에 지원
 - 레이저·광학, 반도체소재부품장비, 기능성코팅융복합, 인공지능, 뿌리스마트융합

■ 지역경제 살리기 ('18년 3,932억 원 → '19년 5,539억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육성(509억 원)

- ▶ 지역 기업,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신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 혁신프로젝트, 혁신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연계 협력, 사업화 지원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 국내복귀 투자 기업 보조금 확대(1,511억 원)

- ▶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설비투자 비용의 최대 24% (토지매입비는 40%) 까지 보조금 지원

지역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설(70억 원)

- ▶ 상생형 투자기업은 업력요건 완화,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최대 100억 원 지원 추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고시)개정: '19년 상반기

구조조정업종 퇴직인력 재취업,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의 활력회복 지원(677억 원)



주요 8개 분야

- ①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 ②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 ③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 ④산업단지 스마트화
- ⑤지역경제 활성화
- ⑥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⑦에너지 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 ⑧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2018년 12월 24일,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9년도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
- 여성분야 :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 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운영,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교육 등 지원
- 청소년분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 센터 7개소 신규 설치
 -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추가 개소
 -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수요자 중심의 진로체험활동을 전국 방과후 아카데미에 활성화 하며 농산어촌 지역 등 방과후 돌봄(활동)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개소를 신규 개소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 ('18) 15개소 → ('19) 30개소 이상

꿈드림 센터

* ('18) 206개소 → ('19) 213개소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 ('18) 8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 ('19년) 9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경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18) 260개소 → ('19) 280개소

내일을 설계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2019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및 훈련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2019년 1월 14일,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19년도 훈련기관 12개소를 선정하고, 훈련기관은 2월까지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해 3월부터 훈련을 실시
 -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에 따라 비진학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 등 학교밖청소년 (만15세~만24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전국 12개소로, 학교밖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 연계형 훈련인 제과제빵·조리사·미용·간호조무·기계가공 등을 마련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2019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에 직접 신청 (훈련기관별 모집기간 상이)
-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밖청소년이 직업훈련이나 취업 등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막상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라고 강조하며, “학교밖청소년이 직업훈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또래들과 교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내일이룸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함



꿈드림



한국생산본부

내일이룸학교

- 의미 :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나의 일)을 이룬다’는 의미
- 훈련대상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등)
- 훈련기간 : 단기(3~6개월)/장기(6개월 이상)

고용노동부장관, 혁신인재 양성의 현장에 가다

2019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심형 신기술분야 전문 훈련기관인 ‘폴리텍 융합기술 교육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산업인력과는 다른 신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을 살펴보고, 훈련생과 기업관계자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3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형 실습을 하여 기존 훈련기관의 과정과는 차별화 되어있다.

이재갑 장관은 “직업훈련은 그동안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하여 신기술분야 훈련을 크게 늘려서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융합기술교육원 주요 특징

기업 맞춤형 과정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훈련과정 설계 단계부터 기업의 수요 반영

전문교원 · 고급장비

신기술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체 경력자 등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훈련시설·장비* 구축
*고성능 오비트랩 질량분석기, Cloud Computing Environment, 스마트 팩토리 실습장비 등

실습 과제 운영

이론·기초실습(8개월) 후, 실습 과제 실시(2개월)
*훈련생은 협약기업이 설계한 과제 수행, 기업현장 관계자가 훈련생 직접 지도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받아

2019년 1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9일,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18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의 공로를 인정 받아 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해 공단은 일학습병행 및 지역산업별 맞춤형 훈련 사업 등으로 8만여 명의 국내 일자리와 정부 해외취업 지원 및 알선사업으로 5천여 명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실력 중심사회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문화 확산 ▲파견·용역,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간외 근로 한도 축소를 통한 신규 채용인원 창출 등 공공부문의 포용적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장섰다.

김동만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 국민의 평생고용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2019년 1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전현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연에는 정진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현주소와 과제'란 주제로,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품질 재직자 직업훈련을 위한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 교수는 재직자 훈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훈련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 ▲훈련과정 질 관리 ▲재정지원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와 노동수요 패러다임, 고용관계 등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직업 출현 및 직무변화 등 짧아진 직업 수명에 직면한 지금,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오늘 도출된 과제들에 대해 정책 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더 나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기준 마련키로

2019년 1월 21일,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 (주)신광엠엔피(경기도 부천)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고졸 취업 확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주요한 취업통로로,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제도로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절차를 합리화하고('19.상반기), 교육과정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올해 추진하고 인증 기준을 마련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으로, 능력중심 고졸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교육계-산업계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아이들의 '고졸 취업의 꿈'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희망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에 맞게 취업하여 대우받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및 주요 인센티브

- 인증제 도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분야에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추가
*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2개 분야로 운영 중
- 병역특례 업체 선정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시 신청대상에 인증기업을 포함, 인증기업에 장기(5~10년)·저리로 자금 공급
- 공공임찰 가점** 인증기업에 공공임찰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에 반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 특화대학 선포식 개최

2019년 1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이 1월 24일 서울정수캠퍼스 학생회관 3층 강당에서 ‘VISION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민의 일자리 특화대학 선포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자리희망 청사진을 제시하며 ‘일자리력, 기술력, 폴리텍인력’ 3가지의 비전과 함께 6가지의 계량화된 목표, 9가지 세부과제의 로드맵을 정립, 이른바 ‘3·6·9 전략’을 선언하였다. 3가지 비전에 따른 6가지 전략목표는 ▲뿌리-기간산업의 고도화 및 4차 산업 중심 학과 신설·개편 ▲교육훈련 품질 향상 ▲포용적 직업교육훈련강화로 연 10만개 국민 일자리 지원 ▲대졸 미취업자, 신중년 등 구직자별 대표 교육모델 정착 ▲합리적 평가제도 확립 및 화합·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세대교체에 따른 교직원 맞춤형역량 강화이다.

2017년 12월 이석행 이사장 취임 이후에 폴리텍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교육 실습을 지원 하고자 지난 12월, 전 공정 통합실습이 가능한 러닝팩토리(Learning-factory)를 구축하여 현장교육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으며, 실습실 조정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10개 이상의 러닝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석행 이사장은 “청년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중년에게는 새로운 도약을 실현시켜주는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국민의 일터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개최

2019년 1월 28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는 1월 28일 ‘2019년도 원격훈련 과정심사 훈련기관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00여 명의 원격훈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격훈련과정 심사 추진방향 및 주요 개편사항, 세부 심사 기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년 사업주훈련 제도 개편에 따른 원격훈련과정 심사 추진 방향으로 ①원격훈련과정 유형 구분 및 관리 체계화, ②직무관련성 심사 내실화, ③공급정도 적용 개편, ④훈련등급 기준 개편, ⑤스마트훈련 활성화 등이 설명되었다.

제도개편 사항이 적용되는 2019년 1차 재직자 원격훈련과정심사는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격훈련심사시스템(e-simsa)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단계별 심사 진행 후 3월 27일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격훈련과정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게재된 설명회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집

[경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https://ksqa.or.kr>)>소통마당>자료실>
원격훈련심사>자료실>‘2019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공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 능력이 중요한가?

2019년 1월 24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030년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 트렌드를 전망하는 조사업체인 쿼텀런(Quantumrun)이 꿈은 ‘2030년까지 생존 가능한 50대 글로벌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해 직업기초능력 15개를 선정한 뒤, 4차 산업혁명 전문가 250여명이 중요성을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은 과거(5년 전)에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이었지만, 현재와 미래(10년 후)에는 위기대처능력의 중요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진 직업기초능력으로는 과거 9위에서 미래 3위까지 오른 미래 예측력과 과거 14위에서 미래 4위까지 상승한 인지적 부담 관리* 등이 있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연결성이 더욱 촘촘해지는 미래사회에서는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기 위한 ‘위기대처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암기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며, “다양한 체험과 소통이 가능한 산학연계 프로젝트형 일터학습을 지원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집합적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미래형 직업기초능력 중요성 분석]

(5점 만점)

구분	과거(5년 전)		현재		미래(10년 후)	
	중요성	순위	중요성	순위	중요성	순위
평균	3.34	-	3.75	-	4.06	-
대응력	3.54	4	3.95	3	4.24	2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3.07	13	3.65	12	4.10	8
호기심	3.24	10	3.66	11	3.98	12
전체 조망력	3.11	12	3.71	9	4.13	7
환경 친화성	3.40	7	3.75	8	3.91	13
위기대처능력	3.70	2	4.03	1	4.29	1
다재다능	3.37	8	3.50	13	3.62	15
열정	3.84	1	3.97	2	4.09	9
기업가정신	3.14	11	3.43	15	3.67	14
미래 예측력	3.36	9	3.80	6	4.23	3
자기혁신	3.46	5	3.84	5	4.09	9
통찰적 사고력	3.45	6	3.78	7	4.09	9
기계협업능력	2.82	15	3.50	13	4.17	5
인지적 부담 관리	2.96	14	3.71	9	4.19	4
회복탄력성	3.65	3	3.90	4	4.15	6

쿼텀런(Quantumrun)

미국 포브스지, 폭스 뉴스 등이 주목한 장기적 미래 예측 기관으로 매출, 브랜드 파워, 혁신 친화성 등 다양한 요소로 1000개 생존 기업 순위를 발표했으며, 연구에서는 상위 50곳이 사용됨

인지적 부담 관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인지적 수용력 (Capacity)을 관리하는 능력

**한국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전문가 250명 대상
미래직업기초능력 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가 꼽은 미래 중요도 1위
‘위기대처능력’**

조선업 위기로 살펴본 울산의 최근 노동시장 동향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겨울호-

한국고용정보원, 2018



「울산 노동시장의 현황」

① 울산의 경제와 산업 여건

- 울산의 GRDP(지역내총생산)은 약 72조 원(2016년) 수준으로(그림1),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GRDP 규모는 상대적으로 큼
- 울산의 산업은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3대 제조업에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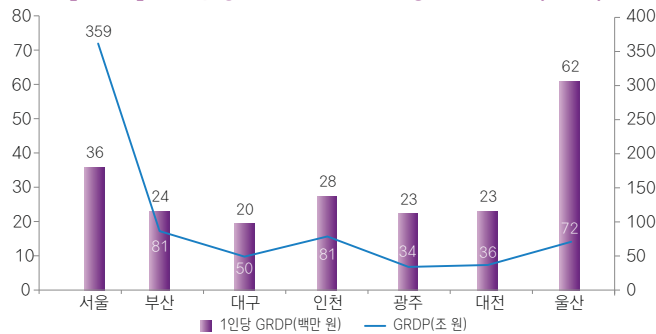
② 노동시장의 특성

- 울산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특징을 보임(그림2)

-울산에서는 임금을 비롯하여 대기업 원청업체와 중소기업 하청업체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수직적인 원·하청 구조는 지역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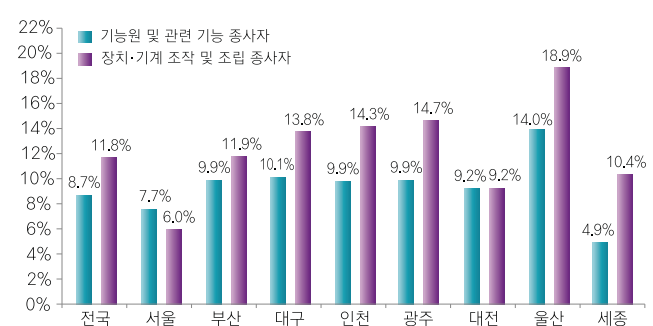
-지역 3대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울산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자동차, 조선 등 특정 분야에서 한꺼번에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충격이 우려됨 (베이비부머 근로소득자 수는 77,580명으로 제조업에 48%(37,254명)가 집중)

[그림 1] 7대 특·광역시 GRDP 및 1인당 GRDP 비교(2016)



주: 당해년 가격기준 /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2] 생산직 관련 분야 취업자 비율 비교(2018. 1/2)



주: 취업자 전체에서 이들 분야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친 영향」

① 지역 경제의 성장세 둔화

- 한국에서 울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1인당 부가가치 창출역량의 증가도 더 이상 한계에 직면 → 지역 3대 주력산업의 성장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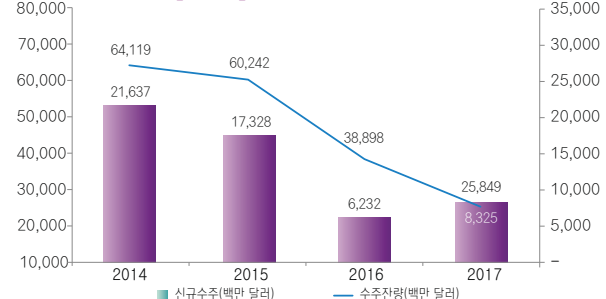
② 조선업 고용의 감소

- 국내 조선업은 2014년, 2015년 급격한 실적 악화를 보이면서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그림 3), 이에 따라서 울산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 조선소에서는 대규모 감원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전개해옴
-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2016년 6월 대비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울산 조선업 사업체 수는 648개사에서 487개사로 161개사(24.8%)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1)

③ 조선소 인근 상권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

- 조선업 고용위기는 조선소가 입지한 동구 일대의 상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음식점, 도소매를 비롯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
- 동구의 부동산 경기 침체 (2018년 9월 동구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92.5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8.5포인트 줄어든 수치이며, 2015년 9월에 비해서는 15.9포인트 감소)

[그림 3] 울산의 조선업 수주실적



주: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IR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표 1] 울산 동구의 조선업 사업체 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구분	'16. 6.	'16. 12.	'17. 12.	'18. 8.
사업체 수(개사)	648	649	521	487
피보험자 수(명)	50,829	46,405	32,526	29,279

주: 조선업희망센터 내부자료(원출처: 한국고용정보원)

④ 인구의 감소

- 조선업 고용위기로 인해 울산광역시 동구의 인구는 단기간 내에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음(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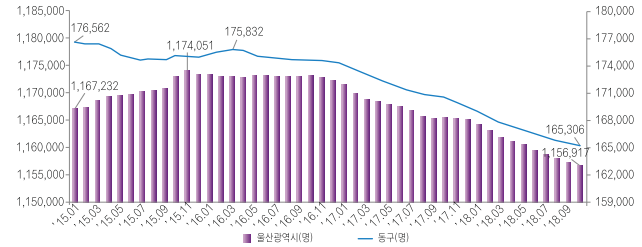
⑤ 실업률 및 고용률의 변동

-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조선업 위기는 지역 고용시장을 강타 하면서 울산의 전반적인 실업률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임(그림 5)
(2015년 대략 3% 내외에서 유지되던 실업률은 2016년과 2017년에 4% 내외로, 다시 2018년 접어들면서 5% 내외로 상승)

⑥ 고용의 질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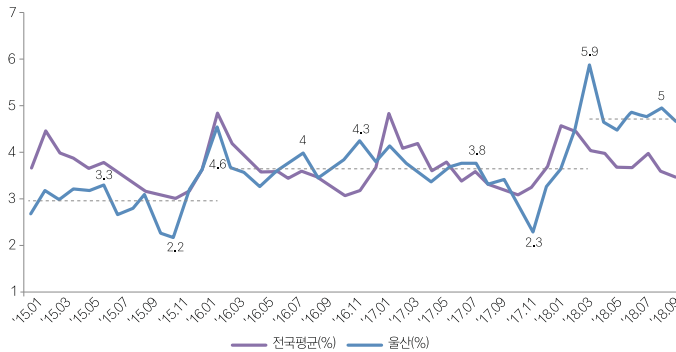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통계에서 울산의 상용근로자 취업은 감소하고 비상용 근로자 취업이 늘고 있는 추세임(그림 6)

[그림 4] 울산광역시 및 동구의 주민등록인구 추이(2015.1~2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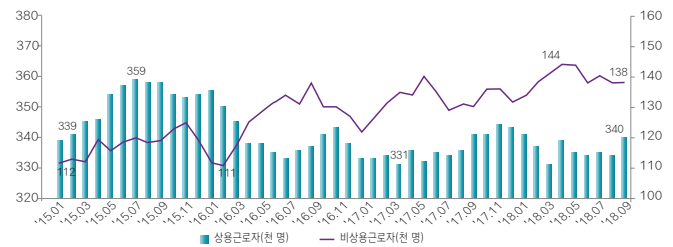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5] 울산 월별 실업률 추이(2015.1~2018.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울산의 상용근로자 및 비상용근로자 추이(2015.1~2018.8)



주: 비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부의 정책 진단과 향후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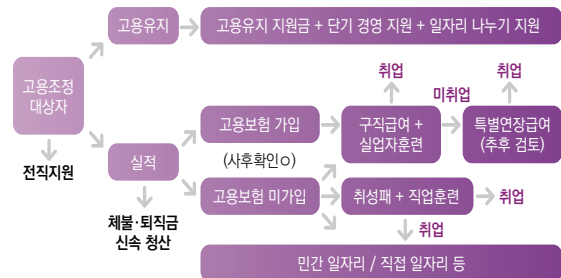
① 중앙정부의 정책 대응

- 2016년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그림 7)
-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립·운영
- 정부정책이 주로 피해를 수습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쉬우나 '조선업 희망센터'의 운영과 같은 정책은 과거에 비해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충분한 개선이 있었음

② 조선업 고용위기의 교훈

- 지자체의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지금보다 더 확보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비교적 좋은 평가를 얻었던 조선업 희망센터의 세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지역 내에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향후의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활용해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7] 지원대책 흐름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위기 발발 이후의 대응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예측하고 예방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노, 사, 민, 정 각 주체들의 적극적 이고 협력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우수숙련기술인 지원 및 역할강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 목적

- '18년 3월에 발표된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수숙련기술인에 대한 기존의 지원 및 역할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자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 및 인재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 및 역할 관련 사업 분석
- 숙련기술단체 사업, 우수 숙련기술인의 역할 및 기업의 활용 현황 조사 분석
-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 및 역할강화 방안 도출
 - 타 부처, 기관 사업 홍보 및 참여 강화 지원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숙련기술인 사업, 중소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등에 참여)
 - 우수 숙련기술인이 서로 연계 가능한 사업 수행과 같은 숙련기술단체 활동 변화 도모
 - 우수 숙련기술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콘텐츠 지원(ICT, 강의기법, 프로젝트 기획 등)등 교육 변화
 -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및 지원 강화
 - 민간활동 연계 지원 강화 등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 연구자 : 김기홍·이남철·나현미

■ 목적

-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직업교육훈련 기회 및 참여 실태를 재조명하여 이들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제시

■ 주요내용

- 다문화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과 연계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운영사례 분석
-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실태 및 요구 분석
- 주요국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실태분석(일본, 독일, 대만)
-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강화 및 지원방안
 - 직업교육훈련 자원체제 구축: 전담기구 설치, 관련 법 보완 등
 - 진로·취업 강화 및 개선방안: 진로지원 전담교원 활용 등
 - 직업교육훈련 강화 방안: 사회 및 직업교육훈련 적응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제도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매뉴얼 개발·표준화 등
 - 인식 개선 방안: 독일, 일본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 연구자 : 문한나·윤수린·박동진

■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한 경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경력 개발체제를 지원하는 방안 도출

■ 주요내용

-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경력개발 관련 동향과 이슈 규명
 - 노동형태의 변화(플랫폼 노동,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 등), 경력개발 패러다임 변화* 등
- 2)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정책 동향 분석
- 3) 업종별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 경력개발 관련 휴가 지원, 국가, 사업주단체, ISC의 역할분장, 경력개발의 시스템화, 노동 조합의 역할 강화 등 제시
-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로자 지원방안 제시
 - ① 정부 주도 경력개발 이니셔티브(Skill 4.0)* 도입
 - ② 훈련휴가제도 운영
 - ③ 4차 산업혁명에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개발 공적 데이터 지원
 - ④ 4차 산업 관련 업종별 경력개발 지원 방안 마련
 - ⑤ 지역 기반의 경력개발 지원방안
 - ⑥ 경력 단계별 경력개발 활성화 방안*
 - ⑦ 경력 인정제도 마련
 - ⑧ 경력개발 정보의 비대칭 해소
 - ⑨ 근로시간 단축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개발의 기회로 활용
 - ⑩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평한 경력개발 기회 제공
 - ⑪ 기존 경력개발 제도 활성화 방안



경력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적 패러다임 (Orthodox Theory)	현대적 패러다임 (New Theory)
명칭	전통경력(traditional career) 조직경력(organization)	무경계경력(boundaryless career) 프로티언 경력(protean career)
주체	조직	개인 주도+조직 지원
활동 범위	조직 내 (intra-organization) 국내	조직 외(extra-organization, boundaryless) 국외
방향	단선적	다차원적
적용 대상	남성중심	사회적 약자 중심
적용 수준	조직 차원	개인 차원
개인의 상황	조직에 대한 충성	개인의 자율성
자아	일과 관련된 자아(work self)	삶과 관련된 자아(whole self)
역할	불면, 고정적, 경직적	유연, 역동적, 이진적, 탄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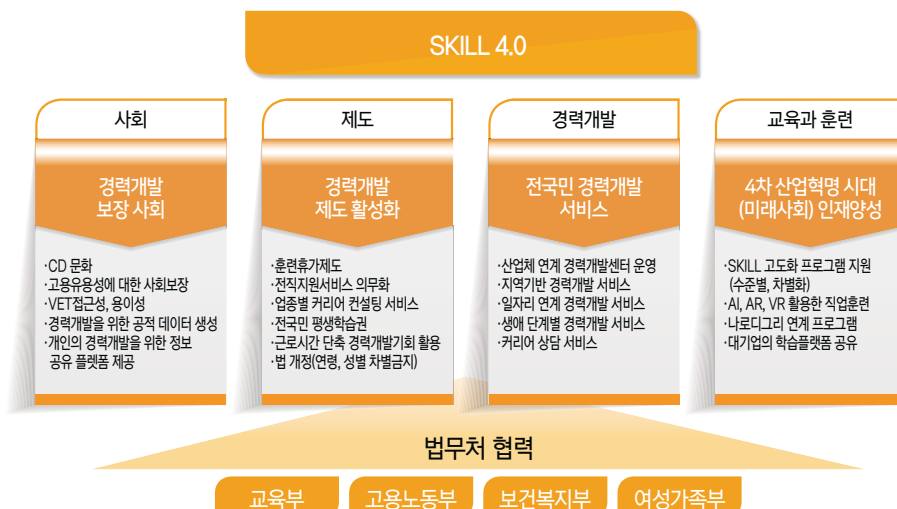
출처 : 김귀영(2010)의 자료(Hall, 1996)

경력 단계별 지원 서비스



Skill 4.0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 설정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독일의 'Industry 4.0', 일본의 'Society 5.0'이 그 예시임



기관 동향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신산업분야 훈련 현장 방문(1.22)
- '19년(1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선정(2.1)
- '19년 1월,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www.hrdkorea.or.kr

- 2018년도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 센터 성과평가
- 보고서 제출 : ~ 2.21, 평가 일정 : 3월~4월(평가 실시 2주전 개별 통보)
- 2019년 민간숙련기술자단체 지원기관 모집(~ 2.26)
- 2018년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27)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ww.keis.or.kr



-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1.9~10, 서울 aT센터)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수여식(1.22, 대한상공회의소)
- 고용노동부 합동워크숍(2.13, 세종시)

2019
01-02



한국폴리텍대학

www.kopo.ac.kr

- 2019년도 하이테크, 신중년, 미래성장동력 신설·개편 선정학과 2차 워크숍(2.14)
- 2019년도 초빙교원 공개채용 면접심사(2.19)
- 신규 교원 임용장 수여식(2.25, 예정)
- 직업교육4.0 CEO 정책자문회의(2.2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ww.koreatech.ac.kr

- 코리아텍 학위수여식 개최(2.20)
- 코리아텍 2019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25~27)
- 코리아텍 일학습병행대학 1기 졸업식 개최(2.20)
- 코리아텍 온라인평생교육원 2019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2.2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019년 상반기 신규 및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신청 및 서류접수(2.7~21)
-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결과 공고(2월말)
- 훈련이수자평가 2차 현장평가 신청(2.1~12)
-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 성과보고 신청마감(2.11)
- 2019년도 1차 재직자 원격훈련 심사 접수마감(2.13)

K R I V E 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 도제훈련 일본 및 중국 사례 공유회(1.18)
- 중소기업 기술사관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중간보고회(1.24)
- 2019년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 컨설팅 및 워크숍(1.24~25)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컨설팅 및 성과보고회(1.29~30)
- 2019년도 기본연구·사업운영위원회(1.29~2.1)
- NCS 기반 교육과정 지원사업 보고회(2.13)
- 2019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설명회(2.26)

2018 Best of CHAMP

제9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우수사례집



제9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우수사례집

2018 Best of CHAMP

